

# 향토문화진흥계획 단계별 점검 뒷집

2013-2022년에 2차 계획 3단계별 추진 평가 '감감'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3차부터는 5년마다 수립 변화 반영·계획 내실 기대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향토문화진흥계획) 추진 상황 점검이 좀더 치밀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으로 5년마다 향토문화진흥계획이 만들어지면서 실행력이 강화되는 만큼 그에 맞는 관리 체계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10년 단위(1차 2003-2011년, 2차 2013-2022년)로 법정계획인 중장기 향토문화진흥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12월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5년에 한 번씩 향토문화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문화생태계 변화에 속도를 맞출 수 있고 계획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졌다. 특히 이번 특별법 개정에서는 향토문화진흥계획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이 반영된 부분은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으로 분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향토문화진흥계획과 동시에 1차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2015-2019년)을 가동했던 제주도는 향후 3차 향토문화진흥계획 연도부터는 제주 지역 문화진흥계획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2차 향토문화진흥계획은 제주해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5대 문화자원(탐라문화권, 해양유적·해양문화, 의식주 문화, 근현대 문화유산, 제주스토리 자원), 문화예술의 섬 우도 조성, 10대 대표문화공간 육성, 인디게임산업 육성, 풀뿌리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청소년 대안예술학교 운영, 문화예술종합센터 구축, 메세나운동 확대 전개, 문화예술국 신설을 10대 핵심과제로 잡았다. 핵심과제를 바탕으로 둔 전략 과제는 19건, 일반과제 82건, 세부사업 163건에 이른다.

향토문화진흥계획 보고서는 1단계

(2013-2016년)에서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 2단계(2017-2019년)에서는 1단계 추진 결과를 분석 평가한 후 계획을 수정 보완하도록 했다. 3단계(2020-2022년)에선 1·2단계 사업 추진 결과를 종합 분석해 잔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한다는 전략을 담았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1~2단계별 추진 실적을 내놓은 일이 없다. 3단계 돌입 연도이자 완료 2년을 남겨놓고 있는 올해들어 2차 향토문화진흥계획에 대한 분야별·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한 실태 파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토문화진흥계획 수립 사항을 심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해당 계획을 살피는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 단적인 예다.

이 때문에 10년에 걸친 2차 역시 '미완의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차 향토문화진흥계획은 선도프로젝트, 핵심과제, 일반시책, 장기과제를 합친 150건 사업의 추진(일부 추진 포함) 비율이 58.7%에 그쳤다. 전선희기자

# 랜선 타고 오는 청년작가전, 오름 사진전

온라인 제주사진단체연합전 단체상·심결상 등 한자리에 김만덕기념관도 온라인 전시



제주도사진단체연합전 강봉수의 '용눈이오름의 일출...사람이 일출이다'.

제주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공공시설에서 계획됐던 전시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제주도문화예술회관을 대관했던 제주도사진단체연합전, 김만덕기념관에서 준비한 청년작가전 등이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회장 이창훈)는 제주 사진인들의 큰잔치인 제30회 제주특별자치도 사진단체연합전을 온라인 전시관인 '제주사진갤러리'(http://www.gallery.jejuask.com)에서 5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어간다. 온라인의 이점을 살려 전시 기간을 크게 늘렸다.

연합전에는 22개 단체와 개인 2명 등 총 325점이 출품됐다. 단체상은 제주기록사진가협회에게 돌아갔다.

개인상 부문인 심결상은 강병진, 강봉수, 강지현, 고봉수, 고영빈, 고혜경, 김경준, 김영철, 양향석, 임관표 씨가 받았다. 연합전에 맞춰 이번 출판작과 역대 단체상·10결상 작품상을 담은 사진집도 묶었다.

(사)김만덕기념사업회(상임대표 고두심)가 주최하고 김만덕기념관

(관장 김상훈)이 주관하는 2020 김만덕기념관 청년작가전 '걸어, 봄' 출판작은 지난 8일부터 온라인(mandukonline.jejur.net)으로 먼저 공개했다. 김만덕기념관은 임시 휴관이 종료되면 곧바로 전시장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청년작가전은 6월 28일까지 계속된다. 전선희기자



만평=신자경(제주만화작가회 회원, 일러스트 캐리커처 작가)

## 문화가 쫓지

문예재단 이사장 13명 응모

제주문화예술재단 제10대 이사장 재공모에 13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문예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이사장 후보를 재공모한 결과 도내 4명, 도외 9명(해외 1명 포함)이 응시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1명, 남성이 12명이다. 문예재단은 조만간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서류·면접심사를 통해 이사장 후보를 제주도지사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신임 이사장은 제주도지사의 임명을 받고 취임하는데,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이다.

도립예술단 오페라 콘서트

2020 제주도립예술단 합동공연 발표회와 프리뷰 콘서트가 이달 16일 제주아트센터에서 잇따라 열린다.

이번 무대는 5개 도립예술단이 7월 10-11일 선보일 예정인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와 '팔리아치'를 미리 맛보는 자리다.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제작발표회와 오후 5시부터 진행되는 프리뷰콘서트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다만 제주도는 1시간여에 걸친 프리뷰 콘서트에 한해 객석의 1/10 규모인 100명을 선착순 모집해 현장 관람이 가능하도록 이끈다. 프리뷰 콘서트 관람을 원하는 제주주민은 5월 11일 오전 10시부터 가동되는 온라인 링크(http://bitly.kr/kCR01vDJp)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문화공간 마루 토요일강좌

제주시 에델읍 상가리 문화공간 마루가 품다락 토요일문화학교 '밤과 별 이야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강좌는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이사장 박인자) 주관으로 초등학교 3-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기는 5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열린다. 수업과 현장학습 등을 통해 융합무용극을 완성하고 공연하는 과정이 이어진다. 박수현 제주에코댄스 대표, 김연정 이슬라디빠체 대표, 윤다래 달매미 대표가 각각 무용, 음악, 시각예술 강사로 참여한다. 참가 신청은 전화(070-7789-6202)나 네이버 밴드(밤과 별 이야기)를 이용하면 된다.

# 현기영 작가 광복회 제정 이육사상

올해 첫 수상자로 선정 "민초의 삶 형상화 탁월 민족정기 선양에 귀감"



"이육사 시인은 감옥을 열일곱 번이나 들었던 투철한 독립투사이자, 보석 같은 시를 쓰신 문학인이다. 평생 이 분을 존경하고 있었는데, 이번 이육사 상을 광복회에서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과거) 우리 문학인들이 자기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글을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족공동체에 반하여 외세와 독재에 빌붙어서 자기 문학을 파는 사례가 허다했다"고 말했다.

제주 출신 현기영 작가(사진)가 이육사 상 첫 수상자로 선정됐다. 광복회(회장 김원웅)는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시인인 이육사 선생을 기리는 '이육사상'을 제정하고 제1회 수상자로 소설가 현기영 작가를 선정해 지난 8일 광복회관 독립유공자실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광복회는 "현기영 작가는 치열한 작가정신으로 대표작 '바람타는 섬', '순이 삼촌' 등을 통해 민초의 삶을 탁월하게 형상화했다"며 "문학작품을 통해 민족의 뼈아픈 수난과 민초들의 위대하고 찬란한 투쟁의 진실을 드러나게 하여 민족정기 선양에 귀감이 되었다"고 수상이유를 밝혔다.

현기영 작가는 수상소감을 통해

현 작가는 또한 "민족정기는 없고, 외세에 노예근성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민족정기가 흐려지는 것"이라며 "광복회가 민족정기를 발현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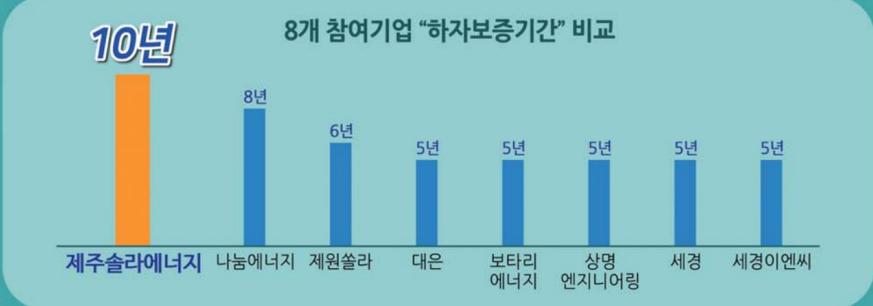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30년 쓰는 태양광, 10년 무상보증으로 안심 !!



제주에너지공사 2020 주택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접수 개시

(3kW 기준 : 보조금 251만4천원 / 자부담 249만원)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주택태양광 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시공실적 1위

도내 최장기간 무상보증을 제공하는 우수한 기술력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솔라에너지 주식회사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